

4 뉴스

또 수강신청 오류 언제까지 이러나

김나형 기자 nxhyxxng27@knu.ac.kr

수강신청 관련 문제가 매 학기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역시 여러 단과대학(단과대)에서 수강신청 기간에 오류가 발생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3학년 수강신청일이었던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호텔관광대학(호관대) 전공과목 여석이 풀리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오류는 해당 학년인 3학년 수업을 제외한 타 학년 전공선택과 전공필수 과목의 여석이 0으로 뜨는 것이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타 학년의 수업을 수강하려고 했던 3학년 학

생들은 사전에 계획했던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이에 호관대 행정실은 경희톡을 통해 해당 일자 오후 4시에 추가 여석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호관대 행정실은 “여석 부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해 전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타 학기 대비 더 많은 여석을 풀기도 했다”며 “예정된 시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 측과 협의해 수강 증원 수요 조사를 협의하고 구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1학년 수강신청이 진행된 지난 8월 10일에는 컴퓨터공학과(컴공과) 1학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공과 전공기초 과목인 ‘미분방정식’ 수업을 신청하지 못했다. 미분방정식 수업은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에서 개설하는 수업이지만, 컴공과의 전공기초 수업으로 컴공과 1학년 학생들은 해당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로 미분방정식 수업이 컴공과 대상 수업이 아닌 타과 수업으로 인식돼 미분방정식 수업을 신청한 컴공과 학생들은 ‘타전공 과목을 수강 할 수 없다’는 알림만을 받은 채 해당 수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오후 1시경 시스템 오류가 해결되면서 컴공과 1학년 학생들은 미분방정식 수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응용수학과 과사무실은 분반마다 15석 이상 여석을 열어 수강신청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던 컴공과 1학년 학생들이 미분방정식 수업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게 조치



호텔관광대학에서 수강신청 오류가 발생했다.
(사진=장비슬 기자)

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에 대해 학사지원팀은 “학사지원팀과 정보처 모두 수강신청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매 학기 수강신청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사전 테스트에서 발견된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는 모두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사지원팀은 “단과대학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수강인원 조

정, 타과 수강 제한 또는 허용 등의 업무는 각 단과대학에 일임하고 있다”며 “사전테스트에 앞서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해당 업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강신청에 대한 대처가 단과대학별로 상이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전공 수강신청일이었던 지난 8월 11일에도 문과대학(문과대) 국어국문학과(국문과) 전공선택 과목 여석이 열리지 않는 일이 있었다.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시간인 오전 10시 30분에 수강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 받은 담당 조교가 자리를 비운 탓에 소수의 전공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문과 전공선택 과목의 여석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약 한 시간 뒤, 전공선택 과목들의 잔여석이 아무런 공지 없이 풀리면서 국문과 대전공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농구P.O 4강에서 마무리

최예령 기자 herry2020@knu.ac.kr

농구부의 ‘2022 KUSF 대학농구 U-리그 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 일정이 결승의 문턱에서 아쉽게 마무리됐다.

농구부는 지난 5일 선승관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강에서 74-91로 건국대에 패했다. 이날 박민채(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8득점 11어시스트 1리바운드, 조승원(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15득점 2어시스트 6리바운드, 고찬혁(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가 30득점 8리바운드로 분전했음에도 결국 결승행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다.

1쿼터에서 고찬혁 선수가 잇따라 득점하며 12-7로 기세를 가져갔으나, 2쿼터에 이사성(체육학 2018) 선수가 파울 트리블로 빠진 사이 25-34로 역전을 허용했다. 3쿼터도 주도권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며 격차는 34-58로 벌어졌다. 농구부는 4쿼터 중반에 압박 수비를 펼치며 경기 종료 3분 25초 전 11점 차까지 따라붙고 총 40점을 득점해 건국대를 추격했다. 하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한 채 74-91로 종료됐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초반에



우리학교 농구부가 2022 KUSF 대학농구 U-리그 플레이오프 4강에서 건국대에 74-91로 패배했다.

(사진=박서현 기자)

기세가 있었을 때 치고 갔어야 했는데 외곽슛이 안 들어가고 딜레이 게임을 해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다”며 “(결승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선수들도 아쉬울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주장 박 선수는 “큰 차이로 진다고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는 ‘경희대 BIG3’라 불리던 김종규(스포츠지도학 2010, 원주 DB 프로미 선수), 김민구(스포츠지도학 2010, 상일상고 농구부 코치), 두경민(스포츠지도학 2010,

원주 DB 프로미 선수)이 활약했던 2013년 이후 9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을 노리는 자리였다. 농구부는 지난 3월에 개최된 ‘2022 KUSF 대학농구 U-리그(U-리그)’에서 10승 4패 및 6연승을 기록하며 7년만에 플레이오프에 3위로 진출했다. U-리그에서 고 선수는 평균 21.2로 득점 순위 2위를 차지했으며 박 선수는 평균 10.1로 U-리그 출범 이후 최초 두 자릿수 어시스트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김 감독은 “올해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이 고맙다”며 “내년 시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개인과 팀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미래를 앞둔 우리 선수들의 미래를 위

해 기도한다”며 “앞으로 경희대를 빛낼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밝혔다. 박 선수 또한 “고집 많은 주장을 믿고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너무 고생했다”며 주장으로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농구부는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다. 첫 경기는 오는 10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체육관에서 우석대-조선대전의 승리팀과 치를 예정이다.

김 감독은 “전국체전에서는 결승까지 가는 것이 목표”며 “이후 새로운 신입 선수들과의 동계 훈련을 통해 내년 시즌에서도 올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면에서 이어짐

서울캠은 노천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1일 차는 e스포츠 대회 및 댄스 경연대회, 2일 차는 동문 참여 행사, 3일 차는 폐막식 및 응원단 응원 한마당 등이 준비돼 있다. 대운동장에서는 ▲경희 운동회 ▲경희랜드가 열릴 예정이다.

경희 운동회는 각 단과대학을 청팀, 백팀으로 나눠 ▲박 터트리기 ▲단체 줄넘기 ▲파구 경기 대결을 치르는 방식으로 오는 29일 이뤄진다. 경희랜드는 이동형 놀이기구와 디스코팡팡 등을 설치해 소규모 놀이공원 형식으로 전일 간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경-외-시(경희대-한국외대-시립대) 교류전 ▲학생 참여 부스 ▲플리마켓 등이 운영된다. 경-외-시 교류전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축구대표팀 교류전으로 오는 28일 서울시립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학생 참여 부스와 푸드트럭은 청운관 앞과 노천극장 일대 등 서울캠 전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캠 총학 송태환(조리산업학 2020) 문화기획처원은 “이번 가을 대동제는 초등학교 시절의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가을 운동회 콘셉트로 진행된다”며 “저학년 및 고학년 학생들, 더 나아가 교수님들까지 서로의 추억을 회상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보드게임, 공기놀이, 땅따먹기 등의 이벤트 부스와 레트로 혹은 체육대회 콘셉트의 플리마켓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